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공모 추진

부산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시작, 8월 초까지 최종 부지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 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말 2개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부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 신청사 건립은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8월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부산시 내 각 기초지방정부에 신청사 부지 공모 시행계획을 통보하였고,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후보지 제안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기초지방정부는 관할 구역에 1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연면적 5만㎡ 이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 1개소를 후보지로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토지 확보 및 이용 여건, 해양수도 조성과의 연계성, 청사 입지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8월 초까지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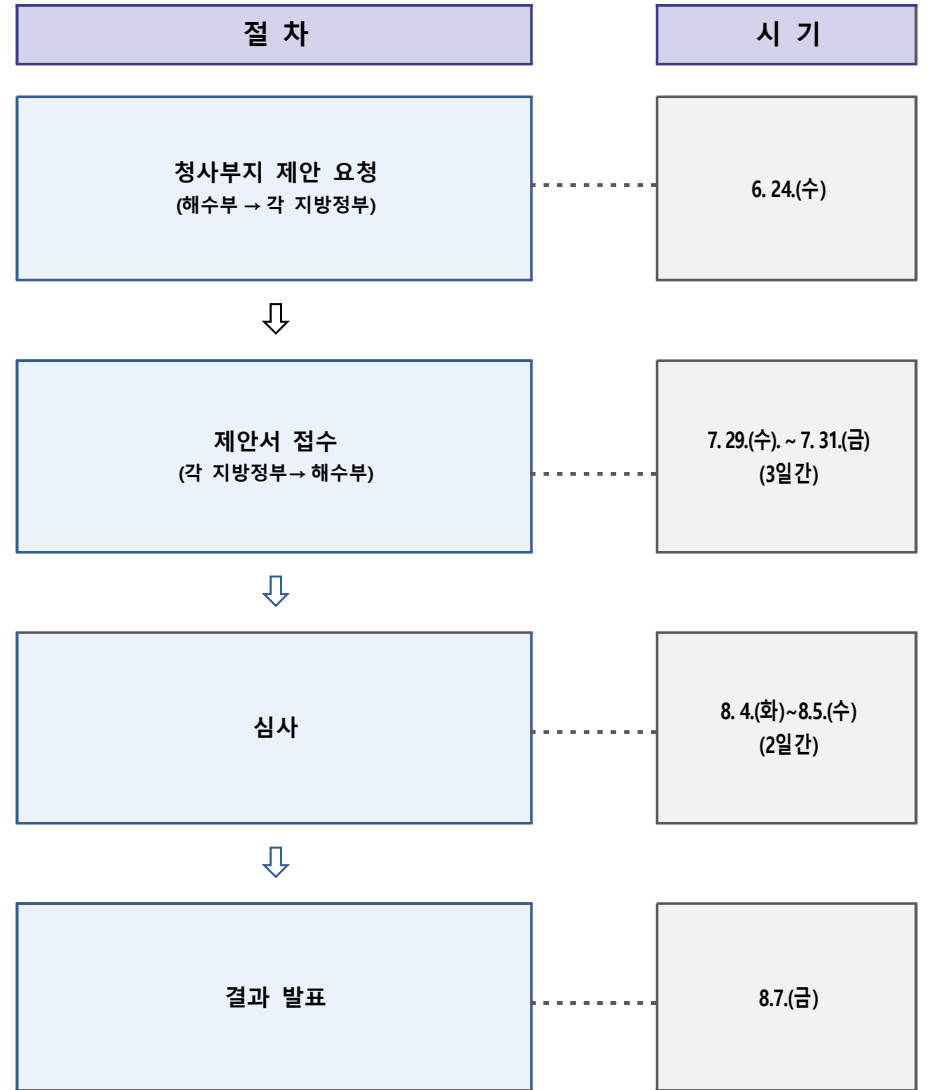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여 설계비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건립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의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부지 선정 이후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성오 (051-773-5050)
		담당자	서기관	오성철 (051-773-6600)

참 고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 공모 추진 일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